

현대상선 제 1 국적선사 최초 사업으로 북극항로 개척 추진

-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러 경제협력과 맞물려 북극항로 개척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아시아와 유럽-대서양 연안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북극항로는 파나마 운하 또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각각 5000km, 7000km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어 북극항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17년 8월 15일,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현대상선이 북극항로 운항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2020년부터 시험운항에 나서는 방안 검토 중
- 앞서 2013년 이후 현대글로벌비스, CJ대한통운 등 대기업 물류회사가 북극항로 개척에 나섰다지만 선박, 인력, 수요 부족 등으로 모두 단발성 운항으로 끝남. 상대적으로 선박, 인력, 영업 인프라가 풍부한 최대 국적선사가 나서면서 북극항로 정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현대상선은 2500~3500 TEU 급 선박 등을 이용해 북극항로 운항에 나설 방침이며, 컨테이너선 앞에 세울 쇄빙선을 조달하거나 쇄빙선 없이도 운항할 수 있도록 아이스 클래스 선박을 발주하는 방안도 논의 중
- 앞서, 중국 최대 선사 코스코(COSCO)는 이미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북극해 시험운항에 성공한 후 관련 운항 기술과 인력 개발에 나섬. 러시아도 북극항로 컨테이너 운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규 노선을 개발

자료 1 : 매일경제 ('17.08.15.)

인도,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선 동진(東進) 전략 '액트 이스트(Act East) 투자 시작

- '17년 6월부터 히말라야 고원 도카라(중국어명 등량)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도로 건설을 발단으로 두달 짜 군 대치 중으로 두 국가간 긴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

- '17년 8월 13일, 인도 정부는 인도 최동북단에 위치한 마니푸르주(州) 모레-미안마 타무-태국 서부 매솟을 잇는 총 1400km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2억5600만 달러(약 2930억원) 투자 계획 발표
- 본 프로젝트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세운 동진 전략 '액트 이스트(Act East)'의 대표사례임
- 모디 총리는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 건설하는 도로와 철도를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까지 확장할 계획 발표
- 한편, 중국은 지난해까지 일대일로에 500억달러(약 56조원)를 투자한 데 비해 인도는 최근 2년간 도로 정비 등에 47억달러(약 5조3800억원) 투자
-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는 서방국가들의 반발이 있지만 인도는 일본의 지지와 함께 일본-미국-호주-인도 4국을 연결하는 마름모꼴의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

자료 2 : 매일경제 ('17.08.13.)

남극, 빙봉 아래 숨어있던 화산 91개 새롭게 발견

-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아 빙봉 아래 화산이 분화할 경우 남극 얼음이 급격히 녹으면서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 상승 야기 우려

- '17년 8월 14일,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팀이 얼음 투과 레이더를 이용한 남극 서부 빙하 아래 지형 탐색과 과거 지질 조사 결과 및 위성-항공사진을 대조해 탐색한 결과 남극 서부의 빙봉(氷棚) 아래에서 화산 91개를 새로 발견
- 기존에 발견된 47개의 화산에 더해 남극의 화산은 총 138개로 집계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화산이 밀집된 지역으로 드러남
- 지구온난화로 남극 얼음이 녹으면 그동안 화산을 누르고 있는 얼음의 압력이 줄어들어 마그마 분출이 촉진될 가능성 제시
- 실제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화산들은 마지막 빙하기까지 얼음에 덮여 있다가 최근 모습을 드러낸 알래스카, 아이슬란드 지역의 화산들로, 최근 새로 발견된 남극 화산들이 현재 활동 중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



그림 1. 남극 서부에 위치한 에레보스 활화산 (사진: Noel Tennant)

자료 3 : The Washington Post ('17.08.15.)